

땅 끝 르완다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여호와 살롬~!!!

1.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2.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3.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후렴) 나 주안에 늘 기쁘다 나 주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안에 늘 기쁘다

바쁘지만 행복한 성탄주간을 보내고 한 해 동안 동행해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뽀싸 연말연시를 아파서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잠만 잤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인사대신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렸습니다. 며칠 전, 잠결에 어깨를 들썩이며 신나게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마음껏 즐기며 새 해 다짐을 했습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사는 동안 힘을 다해 귀하신 내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내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땅 끝에서 '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일상에서 그 사랑과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복음의 지경을 넓히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연약한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 달음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지난 2021 년 한 해 동안에도 한결같이 땅 끝 르완다를 품어 주시고, 무명의 선교사를 격려해 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동역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빼곡히 쌓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하며, 2022 년 새 해에는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갈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오직 예수~ !!!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맹렬하기를 소망하며, 박숙경 선교사 드림



- <https://youtu.be/aSRfC-zY3JE> 중단된 교회건축 현장
- <https://youtu.be/q8fCDuud-Nc> 주의 은혜로 자라는 아이들
- <https://youtu.be/YYCr-6AH39Q> 성탄축하예배
- <https://youtu.be/Dfx06-EdHmA> 12 월 야마세케사역
- https://youtu.be/XL6L5F_8QmE 은혜로 자라는 아이들 2

단기선교사의 수고로 담아낸 사역 영상들. 일상을 다 담아낼 순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사역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리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새로우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빠스타조이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sS9mpMTpMFpRfWxnCiOzJA>



야마세케 지역 어려운 5 개 교회를 선정해 방역시설(수돗가설치)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해발 3.000m 가 넘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 물탱크 설치가 어려웠는데, 작은 물통을 여러 개 다는 지혜를 발휘하는 성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2 개 교회는 교회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방역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시청으로부터 예배를 재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5 개 교회에 소정의 생활비와 옥수수가루 100 개씩을 전달했습니다.



2022 년, 르완다 성서유니온을 통해 한 해 동안 경건훈련을 할 목상집 1,000 권을 구입해 조이플 교회와 지역 5 개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말씀에 열심인 귀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행복입니다. 소정의 후원금과 옥수수가루를 받은 사진도 보내 왔습니다. 목사님들의 핸드폰이 낡아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들의 수고에 늘 감격합니다.

그리고 11 월에 방역시설설치를 위해 방문한 기하라(기타라마)교회. 코로나 19 로 인해 교회건축이 중단된 현장이었습니다. 수도 키갈리를 벗어나 있는 산꼭대기 동네. 성도들이 2 년간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는 저의 기쁨이고 아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귀한 후원자들로 인해 중단없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이심을 또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세울 힘을 주시기를. 천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 그 산골짜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도록이요. 특별히 어린이들이 모여 말씀으로 양육되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도록 할 소망을 가집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산을 내려올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크고 능하신 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조이플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개교 6 년만에 스쿨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좋아하네요. 찐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몸과 지혜가 주님 닮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성탄절을 기념하여 조이플 센터 직원들에게도 선물을 나누고, 코로나 19 기간 동안 예배할 수 없는 조이플 어린이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교라는 길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전교생(유치원 1,2,3 반과 초등 1-2 학년)이 모여 성탄예배를 드리며 축하했습니다.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영상으로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답니다.



조이플 성가대 아이들. 1 년 내내 토요일마다 모여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읽기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도 선물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천 권의 묵상집을 직원들이 나눠서 곳곳에 보내는 중입니다. 1 월 중으로 묵상집 1,000 권과 성경책을 구입에 더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 같은 알콜릭 그룹 청년들.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성탄절을 기념해 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속히 주님께 붙어 새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학교 기숙사로 출발하면서 버스에서 환하게 웃는 올해 15 살인 맏인 사무엘. 모든 것이 너무 좋답니다. 우리 루군도와 이스마엘은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다 23 살에, 19 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야마세케를 떠나 각각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 당당하게 학비를 요청하네요. 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아이들이라 한치 망설임도 없이 학비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학기간 동안은 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방학을 맞은 군도와 이스마엘이 이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도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엘리야, 발레리아, 페루시도 계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려고 합니다. 수도 키갈리에 있는 케자와 에스더도요.

기도제목

- 1) 르완다에서도 코로나 19 부스터 샷과 백신패스가 진행중입니다. 더 이상 락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처방이라고 합니다. 해서 학교와 교회는 일상을 회복했으나, 공공기관과 가게, 스포츠센터와 같은 장소는 제약이 있고, p.m10-a.m.4 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땅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2) 르완다 골짜기마다, 산꼭대기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고립된 마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며, 한 끼의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3) 야마세케 조이플 어린이 교회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시설(전용화장실)과 낡은 교회 재정비를 위해, 현재, 조이플 초등학교 안에서 매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하며, 성경읽기와 쓰기를 통해 가정 안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여라도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예비된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내 주시길 기도해주세요.
- 4) 1 월 10 일에 2 학기 교육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책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기거할 집(동서남북에서 모여 온 이들을) 건축할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교사라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들을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5) 월드미션신학대학 및 대학원인가: 르완다 교육부로부터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신학생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꼭 학교를 열어 달라고 합니다. 꼭 기도해주세요.
- 6) 단기선교사 서경민형제가 대학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이플학교와 신학대학교 사역도 섬기고 있습니다. 드러진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건강과 장래 소망을 위해서도요.
- 7) 자녀 박상규, 상훈이의 삶을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상규는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의 배려로 올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디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조명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복음으로 무장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세요. 둘째 상훈이는 다시 르완다에 와서 영상으로 선교사역을 섬기는 가운데 한국 코이카 계열에 1 년간 취업이 되어 선교회 소속학교인 월드미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상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도록,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로 사용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상규, 상훈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8)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증거를 위해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상황들을 위해 매순간 지혜를 구하며 달음질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선교는 성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

* 현지전화 +250 784 867 424 / 한국: 월드미션프론티어(023232932), 임소연자매(010.6356.1326)

* 후원계좌 국민은행 509001-01-518518(박숙경)

* 메일 joy2949@daum.net , 카톡아이디 [rudiajoy](https://www.kakaocorp.com/entry/rudiajoy), 페이스북 [joysukkyong](https://www.facebook.com/joysukkyong) ,